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8월 5일(금)
---(윤력 7월 8일)---
Пятница
5 августа 2022г.
№ 30 (1199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7일은 철도인의 날로서 매해 8월 첫째 일요일을 철도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과 쿠릴에서 약 130명의 청년 전문가들, 올 초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청년 전문직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할린주 예산에서 약 2천만 루블리가 배정됐다.

청년인재 지원은 교육, 문화, 사회복지, 보건, 농업, 수의학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 자격을 갖춘 인재 유치 문제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특별 관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 전문가들 교육과 유치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의 미래와 향후 발전이 바로 이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서는 주민의 질적인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사, 교사, 문화, 사회적 분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의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약35만 루블리, 중등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26만 루블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2단계로 나누어 제공되는데 첫 단계는 해당 신청서 제출, 2개월 후에 지급, 둘째는 취업한 다음 해에 지급한다.

"전국 각지로부터 사할린에 일하러 오는 전문가들이 지원금을 문의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본토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할린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할린과 쿠릴의 청년들이다. 전문가들이 졸업장을 받고, 취업을 해결하는 향후 몇 달간 신청자들의 주요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130여명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사할린에서 취업한 청년 전문가 600여 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주 사회복지부 사회지원정책개발과의 빅토리아 아브투호와 과장이 말했다.

30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 및 국가기관의 고용주와 최소 5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업 장소가 사할린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 주요 조건이다. 또한 5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직에 종사한 후 1년 내에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거주 지역 사회지원센터 담당부서로 찾아가거나 사회보호부 직통전화(8-800-201-0099)를 이용하면 된다.

사할린의 5개 공공장소 정비 완료

마카로브, 네웰스크, 아니와, 스미르니흐 구역에서 공공장소 정비가 조만간 완료된다. 이 작업은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연방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부로부터 예산이 지역에 지급됐다.

마카로브에는 2개 공공장소가 개장되는데 레닌 그라드스카야 거리의 애견 산책로, 슬라와 오솔길 부근 소공원이다. 네웰스크에서는 소비츠키야 거리 보행자 전용구역이 정비된다. 아니와의 위스크레센스코에 마을에는 공공 휴식 구역이 생기며, 스미르니흐의 오노르 마을에는 소공원이 정비를 마친 후 개장된다.

앞서 사할린주의 4개 광장의 정비작업이 완료됐다. 돌린스크에서는 콤포몰스카야와 세바스티야노브 거리 경계 구역, 체호브 소공원을 정비, 쿠릴스크에서는 예술 공원을 아름답게 정비했으며, 체호브 마을에는 광장 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공공구역 정비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다. 공공시설에는 소규모 건축물을 설치하고, 잔디밭, 휴식과 스포츠 및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했다. 사할린 도시와 마을의 질서 잡힌 편안함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연방 기획에 참여로 우리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추가 재정자원을 끌어들이므로써 정비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택 공공사업부의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이 말했다.

올해는 총 23개 공공장소 정비 작업이 계획돼 있다. 이 장소들은 지난 2021년 전국 투표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선정했다. 지난 5년간 사할린에서는 125개 공공구역에서 보수공사가 이뤄졌으며,광장 및 소공원을 비롯해 횡단보도 구간, 문화회관과 도서관 주변도 정비작업을 했다고 주정부에서 전했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수부대의 날 기념

공수부대 창설 92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지난 8월 2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열렸다.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한 사할린 전몰장병을 기리는 기념비에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참전용사와 시민들이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비탄에 잠긴 어머니 동상 앞에 전몰 장병의 용맹을 기리는 상징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대표들이 기념 화환을 헌화했다.

1930년 8월2일에 소부대가 낙하지역에 상륙하는 첫 훈련이 실시됐다. 공식적으로는 바로 이날을 공수부대 탄생일로 여기고 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전몰 공수부대를 추모하며, 공수부대 참전용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데상트(공수부대)' 군-스포츠 클럽의 청년들이 기념사를 전했다.

공수부대의 변함없는 구호인 '우리 외엔 아무도 없다!'는 지금까지도 계속 외치는 구호다.

사할린, 예산 분야에서 임금 인상

9월 1일부터 사할린주에서 예산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8.2% 인상된다. 대상은 의사, 교사, 유치원 교사, 문화, 사회복지, 임업, 수의학 및 기타 공공산업 전문가들로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사할린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교육기관 복구 지원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출장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흐쵸르스크의 2개 학교 및 1개 유치원의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했다.

몇 주 전 전투로 피해를 입은 도시와 지역의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단시간에 주 정부기관 대표들이 특별 복구단을 구성해 샤흐쵸르스크에서 대규모 활동을 펼쳤다. 사회적, 공공시설 복구 공사를 위해 러시아 및 그 지역에서 다양한 공사기관들로부터 100명 이상이 복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육시설 복구에 치중하고 있다.

18톤 이상의 냉동연어, 할인된 가격으로 사할린주에서 판매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사할린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산업체들의 직송 판매가 이뤄진 가운데 송어는 킬로그램당 78루블리-100루블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선한 생선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사할린 북섬과 쿠릴열도를 포함해 사할린의 14개 지방자치체에 송어를 공급했다. 판매 분포지역은 수산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 세웨로 쿠릴스크 지역에서는 송어와 연어 4톤 이상을 무료로 공급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코르사코브, '한국 맛보아라'축제 개최

지난 29일(금) 코르사코브시 레닌 광장에서 시행정부와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이하 한인회, 회장 이 블라디미르)의 주최로 제1회(테이스트 코리아 (한국 맛보아라))축제가 펼쳐졌다.

축제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고 홍보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4시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그 당시 무대와 판매 부스, 시식 부스, 활동교실 코스 등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동포들이 준비한 떡, 한과(쌀과자 등), 미역, 나물 등과 한국산 여러 제품(식품 및 화장품 등등) 판매가 시작되었다.

이날 광장에 수백 명이 찾아와 한민족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코르사코브 시민들을 환영한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시장은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밝고, 새로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사할린주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한민족의 문화가 널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우리 도시의 좋은 전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코르사코브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한인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사할린 주두마 막심 코즐로브 의원, 코르사코브 지역의회 릴리아 체롬비츠카의 의원, 코르사코브 한인회 일리아 로가쵸브 홍보담당이 수많은 관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할린 사람들은 한민족 문화와 요리를 매우 좋아하고, 이것 없는 사할린을 상상조차 못한다고 하였다.

이날 코르사코브 한인회 소속 '미니말' 타악기팀·'아리랑'예술단 등,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플로모우션' 댄스그룹, 젊은 아마추어 가수와 댄서 등이 펼친 멋진 공연 무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민족 전통 춤과 K-팝의 현대 노래와 춤이 잘 어우러지는 공연은 정말 볼 만했다. 이날 모든 부스들마다 인기가 많았다. 후회를 비롯한 한민족 놀이 마당, 한복 입기 체험, 여러 활동교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신부와 사진 찍기 등으로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노래방이 열려 한국 노래 신명나는 리듬에 춤을 추며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무엇보다 이날 열린 시식대회는 더욱 인기가 많았다. 특히 레시피를 공개하고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시식장에는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해물전, 떡볶이, 김치볶음, 해물탕, 김치만두 등등, 시식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맛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지 녹차를 비롯해 한국산 여러 차 종류도 맛볼 수 있었다.

조직면에서 행사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방문객들 모두가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소회를 전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랜만에 대중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한민족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친절함과 단결심이 넘치는 밝은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코르사코브 시행정부와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한국을 맛보아라' 첫 축제를 계속 잘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배순신, 코르사코브 행정부 홍보실)



이 모 저 모

사할린, 국제 우정의 날 기념

7월28일(목), 러시아 국민문화의 해의 일환으로 국제 우정의 날을 맞아 '사할린이 단결하다' 민족문화축제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사할린주 민족연합회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

축제의 사회자인 알료나 리와 알다르 바자르자포브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의 전문가는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며, 그 영토에 190종 이상의 민족과 인종 그룹이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각 민족들의 풍습과 독특한 문화의 훌륭한 요소들은 보편적 인간의 정신적 가치 유산에 기여하고 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환영사가 이러한 말들을 확증했다.

"실제로 우리 사할린이 우리를 단결시키고 있다. 사할린 영토에서 우리는 한인, 러시아인, 부랴트인, 넵흐인으로 나뉘지만 그 경계를 넘어 한 국민인 우리는 사할린 사람이다. 각 민족의 문화는 나름대로 독특하고, 다양하며, 전체가 사할린주의 모든 문화를 구성하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있다."고 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객들을 위해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노래와 시, 민속 음악이 울려 퍼졌다. 또한 누구나 '우정' 플래시몹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방문객들은 사모바르로 차를 마시며 함께 민족적인 요리들을 맛볼 수 있었다.

축제는 모두가 원무를 추면서 마무리됐다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측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дружбы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Сахалин объединяет", по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дружбы, прошел 28 июля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рамках Год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ущие вечера —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ОУНБ Алена Ли и Алдар Базаржапов — напомнили собравшимся,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являетс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го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90 народов и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И каждый народ вносит лучшие элементы своей самобытной и уник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 сокровищницу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их слов стало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слово презид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ы Пак.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ш остров нас объединяет. Если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мы делим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рейцы, русские, буряты, нивхи, то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есть одна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 сахалинец. Культура каждого народа по-своему уникальна и многообразна и в целом составляет культуру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плавливает народ здесь живущий.

В течение вечера для гостей звучали песни, стихи и мелодии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о флешмобе "Дружба". Кроме того, гости могли отвеж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за чашкой чая из самовара. Завершилась встреча общим хоровод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가족 체육대회에 주민들을 초청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이 체육인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가족과 스포츠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 대회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적인 스포츠 팀들을 초대한다.

8월13일(토) 12시 - 14시까지 대회 참가자들은 흥미로운 오솔길 코스를 극복하고, 기민함과 민첩함을 드러내며, 팀의 정신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유리 가가린 문화 및 휴식 시공원 측이 전한 가운데 가족 체육대회가 최고의 기분을 선사할 것이라 장담하며, 대회 우승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8(4242)7245-75로. 참가하는 팀의 수는 한정돼 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парк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на семейный турнир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городской пар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глаша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урнире "Семья и спорт — единство во всем" актив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команды от трёх человек.

13 августа с 12:00 до 14:00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маршрут тропы развлечений, проявить ловкость и смекалку, показать командный дух и силу, сообщает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гарантировано, а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уже ждут своих чемпионов.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телефону 8(4242)7245-75.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ограничено.

'사할린의 황금 말발굽'의 우승자, 킴프스크 마을에서 결정돼

7월 30일, 제 16회 주 경마대회 '사할린의 황금 말발굽'이 킴프스크 구역 킴프스코예 마을에서 열렸다. 경마대회에 노글리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킴프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아니와, 흠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8개 도시에서 온 경주말과 기수 20명 이상이 경기에 참가했다.

경마 프로그램에는 세 개 종목이 있다. 마장에서는 러시아 리사크, 아랍, 영국, 부조노브 및 기타 품종들의 경마 걸모습을 평가했다. 기수들은 경기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주었고, 경마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데비 경기(두 팀의 경쟁)였다. 예선 경기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기수들은 주지사 상을 놓고 경쟁을 치렀고, 3위와 4위를 차지한 기수들은 시장 상을 두고 '킴프스코예 데비' 경기에 참가했으며, 또한 참가자들은 조랑말 경주에서도 경쟁했다.

1위로 영국 모드메리 순종 암말을 타고 우승한 아니와 지역의 율리아 슈리기나가 우승컵과 상금 20만 루블리를 차지했다. 2위는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흠스크 지역의 카르멜의 기수인 마블란베 하사노브가 차지했고,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알렉산드르 벨로브와 그의 경주마 크레이 애프트가 차지했으며, 수말은 외모 평가 종목에서 우승했다. 시장컵 및 11만6천 루블리의 상금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앙겔리나 아나츠카야와 그녀의 말 앙글로 리사 마에스트로에게 수여됐다. 이 기수와 경주마는 각각 다른 종목에서 상을 차지했는데 외모 평가에서 동메달, 경마에서 은메달을 땀다.

가장 볼 만했던 '황금의 말발굽' 경기와 더불어 관객들은 킴프스코예 마을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경기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지역 장인들의 장식품과 음식을 갖춘 박람회도 열렸다.

В Кировском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Золотой подковы Сахалина" сажалинских жеребят

30 июля в селе Ки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стоялись XVI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но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Сахалина".

В забег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0 всадников и скакунов из восьм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 Ноглик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8면에 계속)

청소년들을 위한 한인 역사캠프 열려

지난 8월 1일(월) 사할린주 청년한인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주최로 <나라의 역사 나의 역사>란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가 열렸다.

해마다 실시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휴식하며, 사할린 한인 역사를 배우고 한민족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월)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열린 캠프 개막식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과 주 청소년한인회 이 세르게이 회장이 인사말을 전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축하하며, 캠프 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기원하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캠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홈스크, 스미르니흐의 14-17세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5일간 오토츠크에 마을 부근에 있는 휴양지에서 거주하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익히게 될 것이라고 캠프 담당자 오 블라디미르 교사가 설명했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에 따르면 이번에는 캠프 참가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고 신중하게 선정을 하였다고 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학생이 한민족 문화 행사에 참가하거나 또는 학부모들이 한인사회에 적극 참여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리고 처음 이 캠프에 신청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첫날에는 개막식 후에 한인문화센터 앞에 있는 사할린한인 회생동포위령비와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해자 추념비에 헌화를 하고 회생 동포들을 기리며 묵념하였다. 이날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에서는 캠프 참가자들을 위해 태권도와 당수도 시범을 보여주었고, 오후에 학생들은 코르사코브의 방향의 언덕에 있는 사할린동포 위령조각상에 헌화한 후 숙소에 들어가 즐거운 놀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캠프 5일간 프로그램에는 한민족 공예인 한지 활동교실, 잡채 만들기 요리 교실, 환경보호에 대한 워크샵, 전통 타악기 익히기, 발표 공연 준비 등등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된다.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과 청년 한인회 임원들이 함께 하고 이들을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돕는다.

캠프 폐막식은 5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배순신 기자)

마카로브, 제7회 '우리는 함께' 축제 진행

지난 30일 마카로브에서 마카로브 시행정부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협력으로 제7회 <우리는 함께>민족 간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두 민족의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한국 문화이다.

이미 마카로브의 주요 행사가 된 이 행사는 오후 1시 세르게이 페르티코브 마카로브 시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박상태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사할린주 정부 행정실장 야나 페도리세바, 사할린주두마 나탈리아 자하르추크 의원의 축사와 환영사로 막을 열었다.

이날 마카로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멋진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렸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 코르사코브의 '아리랑'예술단, 동포 가수들 강팔용·서 마리나·우 미하일·최 율리아 등이 무대에 나서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 축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교실들이 열린 가운데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이 인기가 많았다.

또한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김치 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김치축제'진행자의 말에 따라 이미 준비한 절인 배추에 양념을 하여 김치를 직접 버무리며 무척 즐거워했다.

남성들의 관심사는 '씨름 축제'였다. 이 축제의 주최자로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는 사할린에서 씨름을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함께>축제의 한민족 요소를 담당한 공연은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은 이번에도 주인으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에서 온 한인 대표들을 열려있는 마음으로 환영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도 함께 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사할린 비즈니스회, 사할린주 씨름협회, 사할린주 한인청년회를 비롯해 모든 동포 예술단과 가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우리는 함께' 축제가 동포들의 단결심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축제는 초대 예술인들의 저녁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대중적인 행사인 '우리는 함께'축제는 모두에게 명절 기분을 안겨주는 화려한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마카로브 행정부)



엑슨모빌, <사할린-1> 프로젝트 양도 협상 중

미국의 엑슨모빌(ExxonMobil) 석유·가스 회사가 <사할린-1>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수요일 해당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게시됐다. 문서에는 '이 법인은 모든 제정된 법과 제재를 준수하여 현재 <사할린-1>프로젝트를 다른 방편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엑슨모빌이 사업을 양도하려는 '다른 방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회사 기획에서의 철수 결과 엑슨모빌(ExxonMobil)은 비축된 1억5천만 배럴

의 석유의 등가물을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2021년 말 엑슨이 보유한 석유185억 배럴의 1%보다 적은 양이다. 엑슨모빌은 3월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할린-1>석유·가스 프로젝트에서 철수 의사를 밝혔고, 러시아에서 석유·가스 기획에 고용된 미국인 직원들을 같은 달에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 전했다.

현재 <사할린-1> 프로젝트의 운영자인 엑슨모빌의 자회사인 엑슨 뱃체가스가 30%의 지분을 소유, 로스네프트가 20%, 일본 소데코(Sodeco)가 30%, 인도ONGC Videsh가 20%를 지분을 갖고 있다.

<사할린-2>, 러시아 국영회사로 국유화되다

한달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을 사할린 에너지 주식회사 대신 새로운 운영회사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대통령령 이행으로 8월 2일 미래 설립될 회사에 대한 자체 법령(8월3일에 발표)에 서명했다. 이에 주식회사 '사할린 에너지 투자회사' 대신에 유한회사 '사할린스카야 에네르기야(사할린 에너지)'가 설립된다.

회사의 자본은 1만 루블리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법인이 설립된다.

이에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분 50%+1주를 갖게 되며, 영국의 쉘(Shell)과 일본의 미쓰이(Mitsui), 미쓰비시(Mitsubishi)회사는 제외됐다.

지금까지 사할린 에너지 투자회사의 지분율은 쉘이 27.5%, 미쓰이가12.5%, 미쓰비시가1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해당 지분을 동결하기로 하고 이후 지분 인수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내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여부를 승인할 방침이다. 인수되지 않은 새 법인 지분은 평가 후 러시아 법인에 매각할 계획이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 하층토청에 <사할린-2> 생산 분배에 대한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필톤-아스토호스코예와 룬스코예의 허가권을 새 법인에게 재발급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사할린 에너지 지사장인 안드레이 올레이니코프가 새 국영기업의 대표로 임명됐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Макаров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30 июля в Макарове прошел Седьмой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 и проведен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МО "Макар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их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Этот яркий праздник начался в 13 часов, гостей ждала красочная и разнообраз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стал брендом Макарова, и проводится он с целью сохран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позволя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рус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мэра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я Фертикова, президен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гла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Санг Тхэ,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ён И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ны Федорищевой и депут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и Захарчук.

После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должил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 это разновидность поясной борьбы, в которой борцы, удерживая друг друга за оригинальный пояс, обёрнутый вокруг талии и бедер, пытаются повалить друг друга на землю, используя при этом самы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иемы борьбы вольного стил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разднества работали выставки, павильоны, фотозо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торговые ряды и палатки с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й.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игрушки и сувениры с символикой фестиваля. У людей была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необычную фотосессию, которая запомнится и будет красивым, ярким воспоминанием о празднике Дружбы.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установлены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е палатки с материалами 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Каждый мог создать уникальный подарок и сразу забрать с собой.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й. В этот раз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имч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рошел настоящий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Гости 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много блюд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Сохраняя лучшие традиции фестиваля Дружбы «Мы вместе» юные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иг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Скоморошьи забавы».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вечерне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 участием гостей из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ишель Арми – скрипачка; дуэт Адели и Артёма Зименковых; ди-джей: Роман Филатов,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акарова.

Фот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акар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Жители Корсакова попробовали Корею на вкус

Фестиваль "Попробуй Корею на вкус" прошел в Корсакове 29 июля. Яр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колоритные песни и танцы, традиционная азиатская кухня радовал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дивляли свои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и "попробовать её на вкус" пришли сотни желающих. Приветств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мэр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 Рад видеть всех собравшихся.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н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и ярко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большое культурное многообразие, и, конечно же, культура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Убежден, что такой фестиваль станет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в нашем город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откликнулся в не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Особ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хочется выразит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ни приложили большие усилия, чтобы вам всё понравилось. Желаю всем отл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здоровья и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й, но и приобрести продукцию как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 и изготовленную руками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В широком ассортимент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популярные уходовые средства. Среди предметов домашнего обихода – кухонная утварь, посуда, бытовая химия, средства для уборки квартиры, товары для дома. Ну и, конечно же, излюбленные всеми корейские соусы, специи, различные сладости и напитки.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оллектив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исполн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мпозиции.

Кроме этог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дегустац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олучить фотомagnet на память и пакетик хрустящего хвороста, а также угостить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корейским чае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 словам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сё было ярко, весело и очень вкусно. На площади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просто хорошо отдохнули в конце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устроили корсаковц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Фот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программ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В понедельник, 1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2022».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проводником этого лагеря ста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молодеж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течение 5 дней, с 1-го по 5 августа 20 ребят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17 лет, проживая на базе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Охотского,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провели вместе отлично время.

На открытии лагеря ребят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лидер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Ли Сергей, началь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Сан Тхэ,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и пожелали ребятам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рограмме лагеря: поездки по исторически значимым мест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выезд на гору Грусти в Корсакове, на Памятник 27-ми невинно убиенным корейцам в августе 1945 г. (близ с.Пожарско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тхэквондо, по росписи на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е «Ханджи»,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а «чапчх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Уверен, что ребятам понравится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Каждый день они будут готовиться к отчетному концерту,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на закрытии лагеря 5-го августа», -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лагеря О Владимир.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ами лагеря стали подростк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ирных,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др.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а, они прошли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Желающих был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требовалось. При отборе немаловажным был фактор постоянного участия самого ребенка в коре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либо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диаспоры родителей ребя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ым правом также обладали подростки, которые ни разу н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я в таком лагере.

Судя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бят ждали насыщенные дни. В первый день, к примеру,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с порядком в лагере,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к памятника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орейским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от центра «Остров»,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и тансудо, и много-много другого.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с ребятами работает очень классная команда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 их помощниками стали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Думається,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станет для них незабываемым временем.

Виктория Б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Пхеньяне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риуроченная к 69-й годовщине подписания перемирия в трёхлетнем конфлик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ойну называют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 день подписания перемирия 27 июля 1953 года отмечают как День победы. По сообщению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им Док Хун и члены президиума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в списке участников не упоминается. Он не появлялся на публике почти три недели, с 9 июля. С докладом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иума Политбюро ЦК ТПК по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вопросам Чо Ён Во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а этой земле война ещё не окончена». «Выбранный нами революционный путь, который унаследует следующее поколение,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острой конфронтацией с империализмом», - подчеркнул Чо Ён Вон.

В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сохраняются внутренние противоречия

31 июля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вон Сон Дон ушёл с должности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ртии. Он находился на этом посту 20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членство в партии её председателя Ли Чжун Сока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на полгода. В соцсетях Квон Сон Дон заявил, что берёт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в которой оказалась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Он обещал приня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ры для нормализации положения в парт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путаты Юн Ён Чжин и Чо Су Чжин отказались от членства в Высшем совете партии. Они заявили,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должны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иться. Между тем, Ли Чжун Сок,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ённый от членства в партии, подверг критике заявления о её возможном переходе под управление врем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скольку это может затруднить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к руководству партией.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пределённые силы даже не скрывают сво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амбиций.

Состоялись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29 июля в РК состоялись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с участием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и морской поли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уче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в закрытом формате без официальной огласки и раскрытия данных об их масштабах. Учения по обороне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проводятся регулярно с 1986 года, а с 2003 года они проходят раз в полугодие.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учения не проводились.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жела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Японией.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Монреале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отмечены наградами 26-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Fantasia в канадском Монреале. Детективная драма «Следующая Со Хи» отмечена призом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а триллер «Особый груз» получил приз жюри. Фильм «Следующая Со Хи» режиссёра Чон Чжу Ри ранее был показан на 75-м Кан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едели кинокритиков. Он также получил приглашение в конкурсную секцию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Амстердаме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В РК началась выдача цифровых водительски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С 27 июля полицейские участки и центры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на вождение приступили к выдаче цифровых водительски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Документ загружается в смартфон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и имеет такую же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как и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в виде пластиковой карты. Цифровые прав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банках, пунктах проката автомобилей, аэропортах и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Они пригодны для таких бесконтактных операций как открытие банковских счетов или подача жалоб. С конца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выдача цифровых водительски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в ряде районов Сеула и в Тэчжоне. За шесть меся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ыдало около 87 тысяч цифровых документов.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может быть загружено только в одно моби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личности владельца и в его присутствии. В 2023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систему таких документов, начав повсеместное оформление цифров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личности жителя страны. В документ будут внесены полное имя его владельца, фотография, номер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домашний адрес, а также QR-код,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одлинность данных.

(RKI)

Делегация KOREA TELECOM посетила УрФО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Екатеринбург, 2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четный консул Игорь Самкаев организовал виз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KOREA TELECOM на территорию Ураль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Целью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делегации стало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о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смарт-парковок и медицинского чек-ап центр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Korea Telecom» — крупнейший провайдер интегрированных проводных и беспроводных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луг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уществляющая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1981 года. Компания работает в области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является лидирующим оператором фиксированной телефонии и вторым моби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Ю Ван Рёнг –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оветник ООО «КЕЙТИ РУС», Со Хесон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КЕЙТИ РУС», Ли Джониль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тдела развития глоб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KOREA TELECOM, Екатерина Грибкова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менеджер ООО «КЕЙТИ РУ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Korea Telecom»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фициальных встречах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МИД Росси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Александром Харловым, губернатором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ем Куйвашевым,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ем Карловым и главой город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Алексеем Орловым.

В Тюмени 28 июля прошла официальная встреча делегации «Korea Telecom» с главой Тюмени Русланом Кухаруком, после чего последовали посещения важных для развития партнерства объектов: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промышл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ДСК – 500.

Орг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посетить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и поддерж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 компанией «Korea Telecom», оказыв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х реализации и обеспечивать их комплекс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Астрономы мира собрались на большой совет

Пусан, 2 августа ИА РУСКОР

Крупная 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следние научные данные со всего мира, открылась 2 августа в Пусане. Такое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31-я 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IAUGA)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е три года, происходит спустя четыре года, на этот раз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Основанный в 1919 году в Париже и насчитывающий более 12 400 членов из 84 стран, МАС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в области астрономии и имеет официальные полномочия давать названия вновь найденной планете.

Под главным лозунгом «Астрономия для всех»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стоялось около 1 700 презентаций в более чем 200 сессиях. Презентации включают та-

кие темы, как «Ранняя наука с космическим телескопом Джеймса Уэбба», «Изображение сверхмассивной черной дыры» и «Состояние Вселенной». Брайан Пол Шмидта из Австрали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по физике в 2011 году.

Кан Хэ Сон,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наук о Земл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усана, а также директор IAUGA 2022, заявил,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ит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ая уже входит в число 10 крупнейши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ередовым странам мира в области астрономии.

Мэр Пусана Пак Хын Чжу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эксперты по астрономии со всего мира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второго по величине города страны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До Пусана Вена в Австрии принимала 30-ю IAUGA в 2018 году, собрав около 3000 гостей из 90 стран.

Вошла в восьмерку стран мира с наивысши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вида

Сеул, 4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Совокупное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высило 20 миллионов во вторник, через два года и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стране впервые разразилась пандемия.

Потребовалось два года и два месяца, чтобы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евысило 10 миллионов, но всего около четырех месяцев, чтобы удвоиться до 20 миллионов.

Южная Корея входит в число всего восьми стран мира, включая Бразилию, Индию и США, в котор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ак много случаев, вероятно, потому, что тестирование было тщательным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вое из каждых п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тот или иной момент заразились вирусом, но цифры варьиру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Кореи, самые высокие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бы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Сеуле — 42 165 на 100 000 челове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городе Седжон — 41 133 и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 40 248. Но

уровень заражения был относительно низким в сельских районах, таких как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с 32 725, Тэгу с 34 744 и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с 35 004.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38 600 случаев на 100 000 человек.

Смертность была особенно высокой в Пусане (67 случаев на 100 000 человек),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57) и Тэгу (57), но низкой в Седжоне (10),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28) и Чеджудо (28).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акцинации в стране.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растет. Среднесуточное число за четвертую неделю июля составило 79 490 человек, что на 31 процент бол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ей неделе, хотя тенденция к удвоению, похоже, ослабла. Число серьезн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со 168 в конце июля до 284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среды из-за ослабления иммунитета к вакцинам. В среду утром ежедневное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составило 119 922,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почти з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ванториум» открыва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 сентября он заработает на базе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Обучение в новом технопарке будет идти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Биология и химия», «Физика» и «Информатик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заня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это не только гимназисты, но и ученики ближайших школ.

Технопарк станет вторым школьным и пятым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ванториумы» развернуты на базе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гимназии №3 и школы №31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Открытие детских технопарков происходи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нац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Мы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могли проявля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к инженер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Эти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потом пригождаются нашим талантливым ребятам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вузы. В «Кванториумах» закладывается основа для освоения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регионе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реализуется на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Кванториумы» позволяют преподавать учебные предметы на более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шать различные задач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Это стартов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и городе. Развитие техн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школьников —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Мировая.

Сейчас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в разгаре ремонт помещений под будущий «Кванториум». Три кабинета оснастят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углублено изучать предметы.

— Все работы завершатся в срок. 1 сентября у нас стартует учебный год. В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дня класс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уроков, а во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занятия в технопарке.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ивлечь молодых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специ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во глав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ставило важную задачу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Кванториум» поможет нам вести эту работу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Марина Гулакова.

Темп ремонтных работ оцени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Цой:

— Открытие «Кванториума»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всем ученикам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физику, химию, информатику.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на базе гимназии — это важный шаг по развитию отрасл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ощадку будущего школьного технопарка посетила также куратор областного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рина Савицкая.

— Развит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 это основа будущего для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рада тому, что дети смогут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губернатор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на объекты образования.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мы идем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 подчеркнула она.

Отметим, в 2023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еще одного школьного технопарка на базе гимназии № 1 имени А.С. Пушкин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омогли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из Анив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прием сахалин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подарили электрическую плиту и предложили помощь с заменой окон в квартире.

Александра и Валерий Головач воспитывают дочь и двух сыновей. Глава семьи работает слесарем. Мама пока посвящает все время детям и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волонтерством. Большое подспорье семье дают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Александра хочет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она штукатур-маляр, также окончила курсы визажистов.

— Проект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существуе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За это время десятки семей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помощь от наш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депутат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у которых есть жела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мочь.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никам проекта за неравнодушие и доброе отношение к земляка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женщине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А благодаря «Добрым делам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решаются бытовые трудности семь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районного собрани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фабрики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 Алексей Плотников две недели назад приобрел для них электрическую плиту. 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Лиго» Дмитрий

Ли предложил помощь с заменой старых окон в квартире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 В нашем районе 70 сем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особой помощи. Мы индивидуально работаем с каждой. Иногда за счет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полномочий властей нельзя решить тот или иной вопрос. Тогда поддержку оказываю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екта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помогали с проведением ремонта, покупкой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мебели, компьютеров для школьников, — рассказала мэр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ц.

Напомним,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озволяю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ред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проводится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ный поощрить самых щедрых и инициативных меценат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ходит с мая по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В финал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ю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омплексное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и на областном форуме,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которого приня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профильные министры.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подвели как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уже выполняемых работ, так и намет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шаги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энергоемкость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емировой уровень. В то же время имеется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сниж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как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так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больницы,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ми. Мы реализуем большую программу газификации — переводим котельные с угля и мазут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и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ое топливо. Необходим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заменить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ма с учетом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выступающие эксперты, реализация этих шагов поможет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е только сократить расходы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о и эффе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рост тарифов для населения и бизнеса. Именно это и является конечной целью внедрения всех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островах 145 уго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на 88 газовых. А вместо 21-ой морально устаревшей и физически изношенной появится 13 современных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 удастся достичь экономии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уменьшить вредные выбросы в два-три раз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ся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овышению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и — усиление теплозащиты зданий, погод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замена ламп на светодиодные, модернизация сетей тепл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46 тысяч точек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только треть из них светодиодные. Мы видим потенциал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мена ламп позволит сэкономить на электричестве порядка 73 млн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В целях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используются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К примеру, на Итуруп в феврале запустили солнечную станцию. Потенциал экономики на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 5 млн рублей в год. Такие технолог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и на других остров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Сущ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всего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иходится на сферу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ля снижения потерь воды и тепла предстоит заменить свыше 280 км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около 530 км — водопроводных и более 440 — канализационных. 190 насосных агрегатов на объектах ЖКХ планируется оснастить преобразователями частоты. Ощутимый эффект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дают такж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жилищном секторе и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 усиление тепловой защиты зданий и установка систем пог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яют сэкономить до 30 процентов потребляемого тепла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уют около 200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водить эти работы с учетом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Утепление специаль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не только при ремонте фасадов, но и крыш — именно на них приходится основные потери тепла в ЖКХ. В домах буд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пог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 отопление будет пода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ерепадов температур в разное время года и суток.

Отметим, областной форум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В обсуждении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энергосервисных компаний, ресурсоснабжающих и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42 семьи в курильском селе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в сентябре

В селе Китовое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на 18 и 24 квартиры. В них будут жить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Ход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ах контрол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является нашей приоритетной задачей,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у люд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мать квартиры по цене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рыночной. При этом важно, чтобы качество таких домов было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частности, в селе Китовом будущие жильцы совсем скоро смогут осмотреть свои квартиры и высказать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дрядчику. Недочеты, если они будут,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ят. Также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проверит 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й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троя. Важно развит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и с позиции привлечения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айоны. Ведь, чтобы убедить учителя или медика поехать в отдаленный рай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ло предложить ему конкурентную зарплату 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боты, надо на старте помочь ему решить и вопросы с квартирой.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на площадк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выполн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троительные-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внутренняя отделка помещений и монтаж инженерных систем. Выполня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й.

Квартиры будут сданы «под ключ» — с ремонтом, электрическими приборами и сантехникой. Именно такой принцип — заезжай и живи,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пользуется наи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у островитян.

Через два года у жильцов появится право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этих квартир, в том числ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потеки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Отметим, решение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островитян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арендные дома в Аниве, Корсаков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акж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онда ЖК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В 2021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аю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5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бъекты сдадут в Макар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Анивском и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ах. Работы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редства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получены регионом из вышестоящих бюджетов.

В Макарове откроют сразу 2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 там ид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лощадки для выгула собак на улице Ленинградской и сквера возле аллеи Славы. В Невельске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пешеходную зону на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В селе Воскресенс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явится обществ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с зоной отдыха. К сдаче посл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отовят сквер в селе Омор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Ране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уже завершили на четырех площадк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обнов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ись в Долинске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Севастьянова, а также в сквере имени А. П. Чехова. В Курильске облагородили сквер искусств, а в Чехов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ельскую площадь.

— В рамк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се пожелания граждан. На объектах устанавливают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обустривают зеленые зоны, места отдыха,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Работа по планомерному повышению комфорта в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й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ие в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позволяе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наши возможности и привлеч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ресурсы, а знач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на 23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Их выбра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прошедшем в 2021 году.

За пять л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125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площади и скверы, но и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и библиоте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인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텃밭 재배 작물 기부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송도행복텃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와 가지, 토마토, 옥수수, 대파, 감자 등 12종 20상자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동심원 어린이들과 인천사할린 동포복지회관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나눔행사에는 50여 명의 송도행복텃밭 주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니트꿈나무어린이집 원생들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작물과 함께 동심원 친구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며, 자체 바자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동심원에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나눔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직접 재배한 작물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소중한 기회를 누리고 나눔의 행복을 느끼게 돼 좋았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으로 가치 있는 지역 상생 문화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바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부경대, 이색 인문행사 '도시락 해역인문학 축제' 개최



'도시락 해역인문학 축제'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HK+) 사업단이 지난 31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도시락 해역인문학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연극 등 작품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 성지문화원의 성인 문해 학습자 28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했다.

행사에선 ▲박윤희 소요출판사 대표의 강연 '영화, 연극 속에 담긴 부산 기장 바다 탐방' ▲해동용궁사, 죽성 드라마세트장 등 기장 바다 일대 탐방 ▲부산 기장 거주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사할린의 바다' 등이 진행됐다.

20일에는 부산 성지문화원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은화 성지문화원장의 강의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경대 HK+사업단은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역 인문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락 해역인문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해 오다 올해 체험 활동 방식으로 전환됐다.

부경대 HK+사업단은 부산 지역의 특색인 바다와 인문학을 접목한 도시락해역인문학축제, 청소년 해역인문학, 부경해역인문학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8월 31일 마감

11월 1일부터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40여 개국 3천여 명 참가 예정

한상넷 홈페이지 통해 8월 31일까지 등록 접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이 8월 31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대회 등록 사이트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가능하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올해 대회는 전 세계 약 40여 개국, 3천여 명의 국내외 동포 경제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회는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한상포럼,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 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피칭대회',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면접' 등이 진행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행사', 세계

한상대회 20년 역사 공유와 개최 20주년 축하의 장인 '한상 20주년 기념행사 및 만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개최지인 울산의 중심산업인 친환경 신산업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과 현장 면접을 통해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경제교류의 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한상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제20차 세계한상대회

The 20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2. 11. 1(화) - 11. 3(목)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 한상대회 사전 등록 기간 |

2022. 5. 30(월) ~ 8. 31(수)

| 한상대회 홈페이지 |

www.hansang.net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20 Years of great Korean Business: Embracing the World

주 최



재외동포경제단체

주 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매일경제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программу скачек вошли три дисциплины. В экстерьер оценили внешние данные русских рысаков, арабских, английских, буденовских и других пород скакунов. В конкуре спортсм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мение преодолевать препятствия. Самой азартной частью конных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скачки дерби. Всадники, занявшие в отборочных забегах первые и вторые места, сразились за призы губернатора. Спортсмены, пришедшие третьими и четвертым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Тымовском дерби" на призы мэра.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по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необычных стартах на пони.

Главный кубок и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воевала Юлия Шурыгина из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ерхом на кобыле чистокровной английской породы Модмери.

Вторым пришел дебютант соревнований из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Мавланбек Хасанов верхом на Кармелле. Третьим финишировали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андр Белов и Крей-Эвт. Жеребец стал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ем в дисциплине "экстерьер".

Кубок мэра и денежный приз — 116 тысяч рублей — выиграли Ангелина Анацкая и англо-рысак Мазстр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Эта пара собрала награды и в других дисциплинах: бронзу — в экстерьере и серебро — в конкуре.

Помимо самой зрелищной спортивной части "Золотой подковы", зрителей жд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звернулась ярмарка с угощениями и декоративным творчеством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в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ах для чествования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в конном спорте Евгений Канаев и его супруга Анна Канаева посетя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8 по 9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е смогут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Каждый год сахалинские гимнастки при участии именит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ренеров проводят сборы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питанницы отде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ОГАУ СШ «Сахалин»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в командных, так и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тренировках.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а у Евгении Канаевой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оценить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к, но и применить разработанную авторскую методику тренировок.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является двукрат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чемпионкой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О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2008 и 2012 годах. Он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спортсменкой в ист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кому дважды удалось выиграть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Игр в многоборье. Помимо олимпийских наград,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17 раз становилась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и является много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Европы. Спортсменка впервые посет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где проведет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тренировочных занятий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гимнасток.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является двукрат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чемпионкой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О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2008 и 2012 годах. Он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спортсменкой в ист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кому дважды удалось выиграть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Игр в многоборье. Помимо олимпийских наград,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17 раз становилась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и является много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Европы. Спортсменка впервые посет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где проведет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тренировочных занятий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гимнасток.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новости)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проведе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гимнастик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Тренировочные сбор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вукрат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чемпионки Евгении Канаевой пройдут в спортивном комплексе «Олимпия па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8 по 9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е смогут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Каждый год сахалинские гимнастки при участии именит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тренеров проводят сборы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спитанницы отде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ОГАУ СШ «Сахалин»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в командных, так и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тренировках.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са у Евгении Канаевой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оценить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к, но и применить разработанную авторскую методику тренировок.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является двукрат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чемпионкой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О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2008 и 2012 годах. Он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спортсменкой в ист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кому дважды удалось выиграть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Игр в многоборье. Помимо олимпийских наград, Евгения Канаева 17 раз становилась чемпионкой мира и является много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Европы. Спортсменка впервые посет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где проведет серию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тренировочных занятий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гимнасток.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ивные новости)

Реклама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bilet.sax.com

Загрузите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Реклама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